

연재

+
위대한 코끼리 탄생기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lovnat@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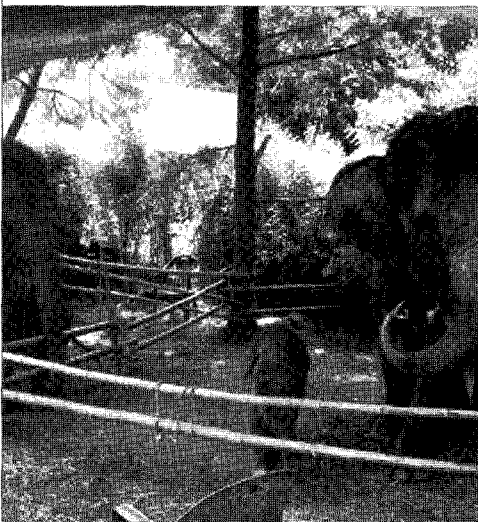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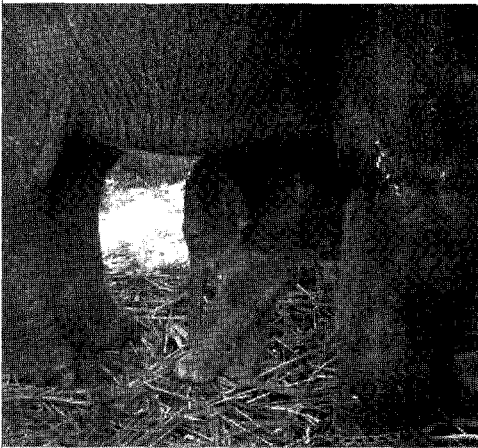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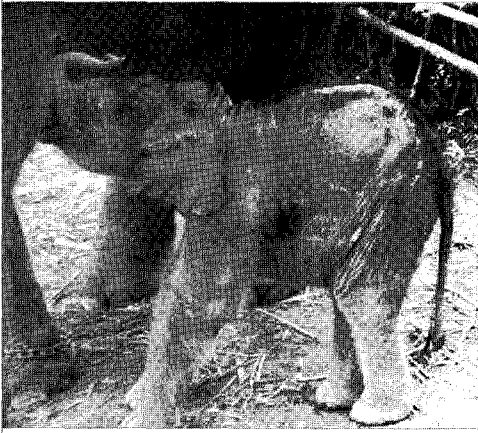
위대한 코끼리 탄생기

우리나라에서 거의 동물원 탄생 101년 만에 처음으로 금년 2010년 6월에 광주에서 코끼리가 두 마리나 한꺼번에 태어났다. 거의 처음이라 하는 건, 그 전에 세 차례 정도 세 개의 동물원에서 각 한 마리씩 출산 소문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공식화 되지 않고 내부정리로 유아무야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스포츠나 모든 역사 기록이 그렇듯 공식 레코드화 하지 않은 한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



연재

+
위대한 코끼리 탄생기



받기는 힘들다. 동물원에서도 무엇이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요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 쪽에 몇 차례 이상 실체가 공개되어야 하고, 국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발표 정도는 이루어 져야 겨우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물원 코끼리 새끼는 국내최초로 4D초음파를 통한 임신진단, 최초의 분만 전 과정 촬영, 어미에 의한 양육과정 등을 모두 언론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내외 어디에 내어 놓아도 명실상부한 메이드인 코리아 코끼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난 동물원의 한 수의사로서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된 걸 무한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동물원에서의 코끼리 탄생, 이는 말로는 쉬워보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코끼리 같이 주위 환경에 예민한 동물이 동물원 같이 갇힌 환경에서 정상적인 성적행동을 발휘하는 확률은 30% 내외이다. 가임기의 암코끼리가 전체 암코끼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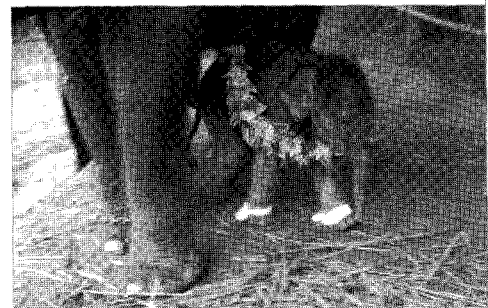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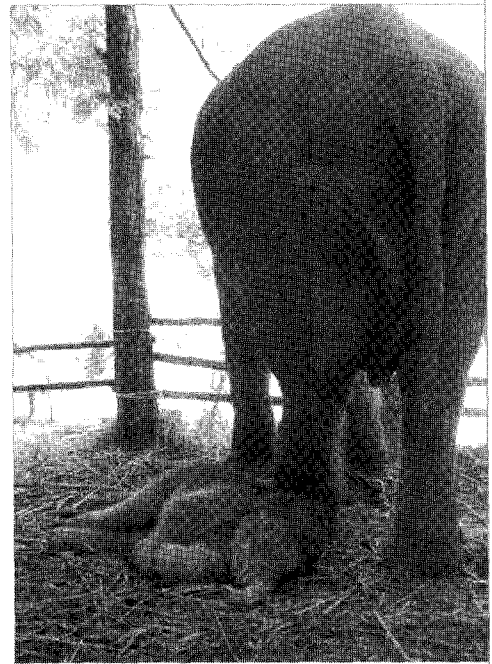
동물원 코끼리는 임신하더라도 유사산 확률이 40%를 상회한다. 태어나도 무사히 키워낼 확률은 50% 이하이다.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백 마리의 동물원 코끼리가 있다면, 매년 코끼리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나서 성장할 확률이 거의 1마리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엔 전체 코끼리가 30마리도 안되고 우리 동물원에 와있는 11마리 코끼리를 제외하면 암수 모두 대부분 늙거나 짝이 없다.

이번에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 코끼리 대를 잇는다는 목적으로 각기 가임기의 암컷 두 마리를 새로 들여왔다지만 이들이 출산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결국 우리 동물원 코끼리 출산은 행운과 정성이 함께 어우러져 만든 위대한 산물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 동료 수의사 독자들을 위해 한 마리 코끼리 출산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분만 4일전부터 '봉(임신한 코끼리)' 이의 귀 뒤 체온이 현저히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난 분만증상 중 하나로 보았지만 조련사들은 '농약중독(천변에서 갈대를 베어다 먹임)' 이라고 해서 대충 아트로핀으로 치료해 주었다. 출산 전날 오후 2시경 갑자기 봉이 옆치락뒤치락 하더니 외부로 다량의 점액성의 회백색 물질을 분출했다. 바로 임신기간 내 자궁과 외부를 막고 있던 마개물 질로서 외국 자료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분만시작 사인 중 하나였다. 즉시 내실로 옮기고 CC-TV를 설치한 후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진통이 계속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풀까지 먹기 시작했다. 이것도 낮에 낳는 걸 피하려는 코끼리의 전형적인 분만지연 현상이라 추측되었다.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린 지 12시간이 넘어 새벽 3시가 되었다. 갑자기 봉이 다시 넘어졌다 일어 섰다를 시작하더니 꼬리 아래 엉덩이 위가 불쑥 튀어 올랐다. 새끼의 산도 진입의 시작이었다. 코끼리는 수평으로 새끼를 낳는 타 동물과 달리 복부에 외음부가 열려 있어 엉덩이 라인을 따라 수직으로 새끼가 내려온다. 그렇게 지켜보자니 진통이 진행됨에 따라 1분 간격으로 조금씩 새끼가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영상에 잡혔다. 그렇게 5분정도 타고 내려오더니 드디어 산도에서 태반이 내비치기 시작했다.



연재

+
위대한 코끼리 탄생기

그리고 그것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더니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지면서 새끼가 바깥으로 엉덩이부터(코끼리는 80%가 후방위로 나온다.)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두 번째 진통을 인지하고 채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외국 자료에는 산도진입 후 길게는 12시간에서 3~4시간 정도 분만이 걸린다고도 되어있는데, 우리 건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초스피드로 나왔다. 조련사들은 즉시 새끼를 바깥으로 빼내고 어미 다리를 두개정도 묶었다. 새끼에 대한 해고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란단. 새끼는 10분 정도 지나자 혼자 잘 일어섰다. 어미는 그 후 5시간 후에 나머지 거대한 태반(후산)을 배출했다.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 태반이 나온 후 새끼에게 젖(초유)을 물려야 한단데 내 상식론은 맞지 않았지만 난 처음이라 이번엔 그저 지켜만 보기로 했다. 태반이 나오자 새끼를 어미 곁에 바짝 붙여서 코를 인위적으로 제껴 주고 새끼의 입과 앞다리 사이에 있는 어미의 젖을 맞추어주었다. 처음엔 새끼나 어미나 서로 피하려 하여 하루 반나절 동안은 어미젖을 억지로 짜서 먹이고 다시 새끼 붙이기를 잠 한 숨 안자고 두 시간 간격으로 반복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차례 젖을 물려주자 어느 순간 새끼가 스스로 젖을 빨기 시작했고 이윽고 어미도 차츰 모성본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가장 큰 고민거리를 넘기는 벽찬 순간이었다.

한달 된 지금 우치(첫 새끼 코끼리, 수컷)와 우리(두 번째 새끼 코끼리, 암컷)는 너무나 장난도 잘치고 아주 예쁘고 건강하다. “우치, 우리야!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라.” 어린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태국 식으로 아기 코끼리 다리에 장수를 의미하는 무명실을 감고 신성한 물을 온 몸에 뿌려주면서 모두가 진심을 모아 축원했다. Fin~

